

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8월 2주 ~ 8월 3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폴란드 경제 동향

- 폴란드 7월 실업률 5.8% 기록, 전월 대비 소폭 개선(8.7)
 - 폴란드 가족·노동·사회정책부에 따르면, 7월 말 기준 실업률은 5.8%로 집계되며 전월(5.9%) 대비 0.1%p 하락
 - 한편, EU 통계청은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해 폴란드의 6월 실업률을 3.1%로 추산, EU 27개 회원국 중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
- 2026년 2분기 평균임금 5.5% 증가, 월 9,233즈워티 기록(8.10)
 - 폴 통계청(GUS)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평균 월 총임금은 9,233.13즈워티 (약 3.5백만원)로 전년 동기 대비 5.5% 증가했으며, 임금 상승세가 지속
- 폴란드 GDP, 2026년 2분기 3.8% 성장(8.13)
 - 통계청은 2026년 2분기 국내총생산(GDP)이 전년동기 대비 3.8% 성장했다고 발표, 전분기 대비 2분기 GDP가 0.9% 증가하며 1분기(0.6%)보다 성장세가 확대되는 양상
- 폴란드,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.0% 기록(8.13)
 - 통계청은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3.0% 상승했다고 발표했으며, 이는 전월(2.5%) 대비 0.5%p 상승한 수준
 - 물가상승률은 5월 3.1%에서 6월 2.5%로 둔화된 이후 7월 다시 3%대로 상승했으며, 폴 중앙은행(NBP)은 '26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2.9%로 전망하고 있어 연간 목표 수준을 소폭 상회할 가능성
- 폴 중앙은행, 기준금리 3.75%로 유지
 - 폴 중앙은행은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으나,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금리인하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
 - Lombard 금리 4.25%, 예금금리 3.25% 등 주요 정책금리도 동결

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○ 폴 기업의 우크라 투자 확대 및 재건사업 참여 지속(8.5)

- 폴 기업들은 에너지·금융·인프라·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우크라 투자를 지속, Maspex의 생수기업 지분 인수(30백만 달러 이상), ZEN.com의 PINbank 인수 및 추가 투자(약 10억 흐리우나) 등이 대표 사례
- 에너지·인프라 분야에서는 Hanplast의 6MW 태양광·에너지저장장치(ESS) 구축(42백만 유로), Unimot의 리비우 연료·에너지 복합단지 조성(60백만 유로), 폴 정부의 M10 고속도로 건설 지원, Unibep의 세히니-메디카 국경검문소 재건 사업 등이 추진 중
- 기존 주요 투자기업인 Cersanit(누적 187백만 달러 이상)와 Barlinek(누적 110백만 유로 이상)도 러시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며, 폴란드 기업들은 전후 재건시장 참여를 적극 모색

○ 우, 2026년 상반기 건설 생산 전년 동기 대비 8.1% 감소(8.10)

-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1~6월 건설공사 규모는 1,068억 흐리우나로 전년 동기 대비 8.1% 감소하며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
- 2026년 6월 건설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3.9% 감소했으며, 특히 토목·엔지니어링 구조물 건설이 24.1% 감소
- 반면 주거용 건설은 0.2%, 비주거용 건설은 1.9% 증가해 건축 부문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
- 전월 대비로는 6월 건설 생산이 27.7% 증가하며 큰 폭으로 반등, 주거용 건설은 13.9%, 비주거용 건설은 33.9%, 토목·엔지니어링 구조물은 27.8% 증가
- 6월 전체 건설공사 중 신규 건설 비중은 46.1%로 가장 높았으며, 수리·보수가 29.8%, 재건축 및 기타 공사가 24.1%를 차지

○ 우크라 기업, 높은 외화 대출금리로 설비투자·생산확대에 제약(8.12)

- 우크라 의회 재정위원회에 따르면, 2026년 2분기 장기 고정금리 대출금리는 달러화 1~10%, 유로화 0.1~10% 수준으로, 높은 외부 조달비용이 기업의 생산시설 확충 및 설비 현대화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
- 유로화 대출은 개선세를 보여 최저금리 구간 비중이 64%로 확대되고

고금리 대출 비중은 전년 22%에서 9%로 감소했으나, 저금리 자금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기업들은 투자 연기·축소 또는 대체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짐

○ 우크라이나, 전쟁 이후 증권 투자자 약 12배 증가(8.13)

- 우 국가증권시장위원회에 따르면, '26년 8월 1일 기준 증권 투자자는 271,300명으로 전쟁 이후 약 12배 증가, 올해만 43,300명이 신규 유입
- 투자자 대부분은 개인으로, 정전·이주 및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단순 저축보다 자산 증식을 위해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

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

○ 폴란드, 제조·물류·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투자 확대(8.3)

- 폴란드는 자동차·항공우주 등 고부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기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, 제조·물류·에너지·안보를 아우르는 전략적 산업거점으로 부상
- MAN은 크라쿠프 인근 니에포워미체 공장에 약 12억 유로를 투자해 생산시설을 확장할 계획, Rolls-Royce와 Safran의 합작법인 Aero Gearbox는 포드카르파츠키에주 롱치체 공장에 약 170백만 즈워티를 투자해 생산라인과 저장시설을 확충할 예정
- 물류 분야에서는 Panattoni의 InPost 전용 16,500m² 터미널과 Quantum Real의 43,000m² 규모 물류단지 개발 등 대형 투자가 이어지며 중·동유럽 공급망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강화
- 폴 의류기업 LPP의 56,000m² 규모 루마니아 물류센터와 BYD의 바르샤바 인근 3,000m² 부품물류센터 등 주요 기업의 공급망 투자가 확대, 루블린은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는 전략적 물류거점으로 주목
- 에너지 분야에서는 Greenvolt Power의 200MW·800MWh 규모 BESS 준공 등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며,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 유연성 및 에너지 안보 수요에 대응
- 아울러 Atlas Ward와 핀란드 Temet이 물류창고·공장 등을 비상시 대피

시설로 활용하는 듀얼유스(Dual-use) 건축을 도입하는 등 산업·안보 인프라 연계도 강화

○ **Greenvolt Power, 폴란드 최대급 200MW ESS 준공(8.2)**

- Greenvolt Power는 포들라스키에주(Podlaskie) 투로시니 코시치엘나(Turośń Kościelna)에 출력 200MW·저장용량 800MWh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(BESS)를 준공했으며, 폴란드 최대급 ESS 시설 중 하나로 국가 송전망(110kV)에 연결

○ **Grupa Azoty 노조 파업경보 선언, 임금 인상·복지 회복 요구(8.3)**

- 폴 최대 화학기업 그루파 아조티의 노동조합(NSZZ Solidarność)은 ▲ 2026년 9월까지 전 직원 월 1,500즈워티 순임금 인상 ▲중단된 단체협약상 복지혜택 복원 ▲조직개편 시 노조와의 사전 협의 ▲고용 및 조직변경 관련 정보의 적기 제공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
- 그루파 아조티는 약 135억 즈워티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, 2025년 3분기 Polimery Police 사업을 ORLEN에 매각해 약 47억 즈워티의 부채를 감축할 예정이나 재무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

○ **신공항 연계 철도·도로 사업 추진, WKD 노선 연장 포함(8.2)**

- 신공항 '포트 폴스카(Port Polska)' 프로그램의 연계 인프라 사업으로 수도권 통근철도인 WKD(Warszawska Kolej Dojazdowa) 노선을 그로지스크 마조비에츠키 라돈스카(Grodzisk Mazowiecki Radońska)역에서 신공항 철도역·버스터미널까지 연장하고, 중간 정차역을 신설할 예정

○ **비스와강 수위 저하로 폴란드 석탄화력발전소 일부 가동 중단(8.4)**

- 기록적인 폭염과 장기 가뭄으로 비스와강 수위가 낮아지면서, 냉각수를 강물에 의존하는 폴란드 국영 전력기업 Enea 소유의 코지에니체(Kozienice) 및 포와니에츠(Połaniec) 석탄화력발전소가 일부 발전설비의 가동을 중단

○ **폴란드, FSRU 2 LNG 터미널 공동 활용 협약 체결(8.4)**

- 폴 가스망 운영사 Gaz-System과 Orlen, PGE, Enea, UNIMOT 등 4개 에너지 기업은 발트해 그단스크만 FSRU 2 LNG 터미널의 기화(Regasification) 용량

공동 활용 협약을 체결

- **Gaz-System, 그단스크만 FSRU 해저 가스관 마이크로터널 굴착 완료, 2028년 가동 목표(8.11)**
 - Gaz-System은 그단스크만 부유식 LNG 저장·재기화설비(FSRU)의 해상 부문에서 1km 이상 길이의 해저 가스관용 마이크로터널 굴착을 완료, 해당 1호 FSRU 터미널은 연간 최대 61억m³의 천연가스 처리가 가능할 예정
 - 폴 정부는 2026년 6월 그단스크만에 제2 FSRU(FSRU2) 건설 계획도 발표했으며, FSRU2의 해상·육상부문 공사는 2029년 완료하고 2030년 초 재기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
- **폴란드, 토마슈프 마조비에츠키 역사 현대화 사업 입찰 공고(8.3)**
 - 폴 국영철도사 PKP는 토마슈프 마조비에츠키(Tomaszów Mazowiecki) 역사 전면 현대화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을 공고했으며, 제안서 접수는 8월 21일까지 진행
- **폴란드, 최초로 풍력발전소의 계통 주파수 조정 서비스 개시(8.3)**
 - 프랑스 에너지기업 Engie는 36MW 규모 Dąbrowice 풍력발전소가 폴란드 내 최초로 부하주파수제어(LFC) 기반 전력계통 조정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고 발표
- **캐나다 광산기업 Lumina Metals, 폴란드 노바솔(Nowa Sól) 구리 광장에서 첫 시추 완료하며 대형 구리광산 개발 절차 본격화(8.5)**
 - Lumina Metals는 노바솔 외에 술미에지체(Sulmierzyce)와 모주프(Mozów) 광구에서 탐사 활동을 병행하며, 장기적인 구리 자원 개발 기반을 확대 중, 2030년까지 채굴 인허가를 획득해 유럽 최대 규모 구리광산 중 하나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광업 허가를 준비 중
- **에스토니아 Enefit, 폴란드 내 45MW 태양광 발전소 가동(8.7)**
 - 에스토니아 국영 에너지그룹 Eesti Energia 산하 Enefit은 스트샤우코보(Strzałkowo) 지역에 45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며, 폴 내 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총용량을 78MW로 확대

- 스트샤우코보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약 45백만kWh(45GWh)의 전력 생산이 예상되며, Enefit의 폴란드 내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평가됨
- 폴란드, 고속도로망 완성 앞두고 120km 신규 도로 건설 추진(8.7)
 - 폴란드는 정부 목표 고속도로망(약 2,100km) 완성을 앞두고 있으며, 현재 약 1,950km를 구축해 목표 대비 약 150km만 남은 상황
 - 특히 신규 건설 예정인 바르샤바 우회도로는 총 약 240km 규모로, 남부 구간 A50 고속도로와 S50 고속도로 구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며, 수도권 통과 교통량 분산 및 물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
- Orlen, 약 20억 유로 규모 신디케이트 대출 추진(8.7)
 - 폴 에너지기업 Orlen은 대규모 투자 및 사업확대를 위해 약 20억 유로 규모의 신디케이트 대출 조달을 추진 중이며, 4분기 중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발표
- 폴, 310억 유로 규모 'Port Polska' 메가공항·고속철도 사업 입찰 본격(8.9)
 - 폴 정부는 총 310억 유로 규모의 'Port Polska'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이며, 바르샤바와 우치(Łódź) 사이에 신규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동시에 전국 고속철도망 및 여객·화물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
 - 2026년 7월 말 기준 총 140억 즈워티(약 5.3조 원) 규모의 입찰 29건을 발주했으며, 연말까지 400억 즈워티(약 15.2조 원) 이상 규모의 추가 입찰 58건을 진행할 예정, 2027년 240억 즈워티, 2028년 170억 즈워티 규모의 입찰도 계획
 - 2024~2032년 사업 예산은 총 1,317억 즈워티(약 50조원)로, 국가 재정·EU 기금·시장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며, 2032년 이후에는 공항·철도 추가 개발과 함께 오피스·호텔·물류시설 등 상업 개발도 추진할 방침
- Mitsubishi Electric, 폴 철도 전력전자 기업 Medcom 지분 51% 인수 하며 바르샤바 생산·R&D 거점 확대(8.10)
 - Mitsubishi Electric Europe은 폴란드 전력전자 기업 Medcom 지분 51%를 인수하는 계약을 8월 5일 체결, 필요한 행정 승인을 거쳐 2026년 3분기 내 거래를 완료할 예정

- Medcom은 수개월 내 바르샤바에 제2 생산시설 건설에 착수해 사업 확대와 신규 고용 창출을 추진할 예정
- 폴 국영 에너지기업 Enea 지주사 전환 승인, 전력·가스 판매사업 자회사 분리(8.10)
 - Enea는 기업 구조개편안에 따라 전력·가스 판매사업을 기존 자회사인 Enea Power & Gas Trading으로 이전하고, 해당 법인의 사명을 'Enea Sprzedaż'로 변경할 계획
 - 구조 개편 이후 Enea는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며, 전력 거래·판매, 배전, 발전, 광업 및 기타 지원사업은 각각의 자회사가 담당하는 구조로 재편될 예정
- EU 집행위, 79억 유로 규모 폴란드 KPO 5차 지급 신청 승인(8.10)
 - 유럽연합 집행위원회(EC)는 폴란드가 2026년 6월 신청한 79억 유로 규모의 국가회복계획(KPO) 5차 지급 신청을 긍정 평가했으며, 경제·재정위원회(EFC)의 의견 수렴 후 최종 지급 결정이 이뤄질 예정
- 크라쿠프 탈탄소형 지역난방 전환 본격화, PGE 960MWt 신규·현대화 투자 및 대규모 열저장 추진(8.10)
 - PGE Energia Ciepła가 크라쿠프 CHP 시설 전환을 위해 총 960MWt 규모의 신규·현대화 투자를 추진, 약 100MWe·100MWt 규모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시작
- Orlen, 리투아니아 마제이키아이 정유공장 42.2MW 태양광 발전소가동(8.11)
 - Orlen은 리투아니아 마제이키아이(Mažeikiai) 정유공장 부지에 42.2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·가동했으며, 연간 약 45GWh의 전력을 생산해 Orlen Lietuva의 전력수요 약 7%를 자체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
 - 총 투자비는 약 35백만 유로, 이 중 2.5백만 유로는 EU 현대화기금(Modernisation Fund)에서 지원
- Tauron, 발전·열병합 사업 실적 개선에 따라 자산손상차손 2.97억

즈워티 환입(8.11)

- 환입의 주요 배경은 두 회사의 양호한 영업실적에 따른 전력·열 판매 수익 및 현금흐름 개선으로, 열 공급망의 우호적인 요금 수준과 계통 서비스 관련 규제수익 증가도 긍정적으로 작용

○ 폴란드, Boeing과 아파치 헬기 정비센터 구축 협약(8.11)

- 우치(Łódź)에 조성될 센터는 폴란드가 도입할 96대 전량의 정비·수리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며, 유럽 내 미국 방산기업의 정비·생산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임

○ 폴 Elektrotim, Tauron과 18.8백만 즈워티 규모 110kV 케이블망 구축 계약 체결(8.11)

- Elektrotim이 Tauron Dystrybucja와 18.8백만 즈워티 규모 설계·시공 일괄계약을 체결했으며, S-420 선로에서 Kalinówka 110/20/6kV 변전소까지 110kV 케이블 2개 노선을 구축할 예정

○ 폴,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쇄로 2028년 전력공급능력 부족 우려 제기(8.11)

○ 폴란드 화학업계, 탈탄소화 투자 확대에도 배출 감축 과제 지속(8.13)

- EU 배출권거래제(EU ETS)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, Azoty·PCC Rokita·Orlen·MOL·Qemetica 등 주요 화학기업들은 에너지 효율화, 재생에너지·수소 활용, 설비 현대화 및 에너지 회수 등을 중심으로 탈탄소화 투자를 확대

○ 사우디 엔지니어링 기업 ACWA, 폴란드 Wrocław 증기터빈 서비스 사업 인수(8.11)

○ PSE, 재생에너지 과잉발전으로 출력제어 보상비용 급증, 올해 7월까지 57.9백만 즈워티 지출(8.10)

- 전력 수요를 초과하는 태양광·풍력 발전량 증가로 PSE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출력제어 보상비용이 급증
- 2026년 7월까지 PSE 지출액은 57.9백만 즈워티로 전년 연간 지출액의 2배 이상을 기록, 전체 보상비용은 이미 1억 즈워티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됨

○ 폴란드, 태양광 발전 초과 공급으로 8일 연속 출력제어 시행(8.13)

- 폴 송전망 운영사 PSE는 8월 3~10일 8일 연속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 생산을 제한했으며, 8월 6~7일 및 10일에는 풍력발전에도 출력제어를 시행
- 폴란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이 약 27.5GW까지 확대된 가운데, 태양광 발전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력수요 및 수출 여력이 부족할 경우 전력 공급과잉으로 인해 비시장적 출력제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파악됨

○ PSE, 해상풍력 전력계통 연계 위한 400kV 송전선 22km 구간 완공(8.13)

- PSE는 Choczewo 변전소에서 Gniewino 지역 64번 철탑까지 연결되는 400kV Choczewo-Gdańsk Przyjaźń 송전선 1단계 구간의 건설 및 케이블 설치를 완료하고 최초 계통 연결을 통한 시험운전을 실시
- Choczewo 변전소는 현재 가동 중으로, 2026년 7월에는 Orlen과 Northland Power가 개발 중인 Baltic Power 해상풍력단지에서 최초 전력을 공급받기 시작

○ 프랑스 Veolia, 폴란드 Bielsko-Biała시 소유 열공급기업 Therma 인수 관련 경쟁당국 승인 획득(8.13)

- 프랑스 에너지·환경기업 Veolia는 Bielsko-Biała시가 지분 약 98%를 보유한 지역 열공급기업 Therma 인수를 추진 중이며, 폴란드 경쟁소비자보호청(UOKiK)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획득
- Therma 매각의 최저 입찰가격은 약 137백만 즈워티로 책정, 인수 희망 기업은 11월 13일까지 27백만 즈워티 이상의 보증금을 납부 후 입찰 참여 가능
- 다만 Therma의 기존 소수주주인 Tauron Ciepło가 우선매수권을 보유, Veolia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Tauron은 45일 이내 동일 조건을 수용해 Therma를 인수가능하며, Tauron은 7월 말 별도로 UOKiK에 기업결합 승인을 신청했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
- Engie 역시 Therma 인수를 위한 실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Veolia·Tauron·Engie 간 인수 경쟁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
- 향후 입찰 경쟁, Tauron의 우선매수권 행사 및 시의회 승인 절차가 Therma의 최종 인수 주체와 거래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

- 폴 주택개발업체, 건축허가 절차가 최대 2~3년까지 장기화되며 주택 공급 제약(8.12)
 - 현행 제도상 건축허가 발급 기한은 65일로 정해져 있으나, 실제로는 행정 기관이 추가 서류 및 각종 협의·합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면서 인허가 절차가 수개월에서 최대 2~3년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
 - 특히 행정기관의 규정 자의적 해석으로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거나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, 일정 지연 및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함

4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

- 우 창호업체 Ekipazh, 제4공장 건설에 최대 7억 흐리우냐 투자 추진(8.3)
 - 우 창호 제조업체 Ekipazh는 최대 7억 흐리우냐를 투자해 제4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, 오데사주를 후보지로 검토 중
- PwC, 우크라이나 광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할 확대 전망(8.3)
 - PwC는 우크라이나 EU 및 미국과의 핵심광물 협력, 재건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입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
 - 다만 우크라이나의 잠재력 실현을 위해서는 인프라 현대화, 지질정보 고도화, 인허가 절차 개선, 예측 가능한 규제체계 구축 등 투자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
-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인 대상 혐오범죄 증가(8.4)
 - 2026년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신고가 전년 대비 약 3분의 1 증가하는 등 폭행·혐오표현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, 폴란드 경찰도 2026년부터 우크라이나인 대상 범죄의 수사·기소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
- 우크라이나 리비우, 2026년 7월 주택가격 최고 도시 등극(8.4)
 - 리비우 신규 주택 평균 분양가는 m²당 1,500달러로 전년 대비 7% 상승, 전쟁 이후 처음으로 키이우를 제치고 우크라이나 최고가 도시로 부상

- 리비우 주택가격은 키이우보다 약 6% 높은 수준을 기록, 우주호로드가 3위를 유지한 가운데 빈니차는 m²당 1,180달러로 처음으로 4위에 진입
- 최근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빈니차(18%)가 가장 높았으며, 체르니우치·이바노프란키우스크·테르노필(각 14%), 흐멜니츠키(13%) 등이 뒤를 이으며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 확대
- 우, EU 개혁 이행 지연으로 최대 73.5억 유로 지원금 집행 차질 우려(8.4)
 - 싱크탱크 RRR4U는 우크라이나가 Ukraine Facility 및 Ukraine Support Loan 지원 조건인 개혁 과제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서 미이행 과제 규모가 총 73.5억 유로에 달한다고 분석
 - 특히 2025년 이행 대상 과제 가운데 19.3억 유로 규모의 8개 과제가 미완료 상태로, 공무원법 개정, 국가 위험평가 실시, 국영기업 개혁, 국가보조금법 복원, 재생에너지 투자 인허가 개선, 전력시장 운영기관 지정 등이 포함
- 세계은행, 우크라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프로그램 검토(8.6)
 - 세계은행과 국영 주택금융기관(Ukrfinzhytlo)은 원금 최대 20% 지원, 초기 4년간 이자 일부 보전, 계약금 5~10%를 포함한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중
 - 총 390백만 달러 규모의 신규 프로그램은 향후 3년간 2만~3만 건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해 시장 규모를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, 민간은행 참여 확대와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- Maersk, 흑해 항만 차질 대응 위해 루마니아-우크라이나 임시 철도운송 서비스 개시(8.6)
 - Maersk는 오데사 지역 항만 운영 여건 악화에 대응해 루마니아 콘스탄차(Constanta)항과 우크라 내륙 터미널을 연결하는 임시 철도 서비스를 도입
 - 신규 서비스는 키이우(Kyiv), 오데사(Odessa), 테르노필(Ternopil) 터미널을 연결하며,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을 지원
- 터키 Aydem Holding, 키이우 주와 최대 100MW 규모 재생에너지

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(8.7)

- 폴란드·우크라이나, 화물 급증 대비 국경 통관역량 확대 추진(8.10)
 - 폴란드·우크라이나 세관·국경당국이 서부 육상 국경검문소의 화물 운송량 증가에 대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, 우크라이나는 화물 통관 인력을 증원해 국경 통과 처리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
- 르비우 주정공장, 바이오에탄올 복합단지 개발 추진(8.11)
- 우크라 Aravana Energy, 미콜라이우 22MW 풍력발전소 건설 추진(8.11)
- 우크라 에너지 인프라 사업 인허가 간소화 및 국영 우라늄 기업 지배 구조 개편 추진(8.11)
 - 우 의회 에너지위원회가 전력망·가스 인프라 등 에너지 안보 관련 사업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·신속화하는 법안(13450호)을 지지
 - 또한 우라늄 채굴기업인 SkhidGZK를 국영기업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법안(15122호)을 지지했으며, 민영화 없이 지분 100%를 국가가 보유해 우라늄 생산 확대를 통한 원전 연료 공급망 및 에너지 독립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
- EBRD, 우 기업 지원 위해 최대 3.3억 유로 금융·위험분담 지원 추진(8.11)
 - EBRD가 ProCredit Bank Ukraine와 총 3.3억 유로 규모의 신규 금융·위험분담 사업 2건을 추진하며, 9월 9일까지 승인 예정
- 아제르바이잔, 우크라이나에 연간 5억~10억m³ 가스 공급 가능성(8.12)
 - 아제르바이잔이 필요 시 우크라이나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, 양국은 2025년 첫 시험 공급을 실시했으며 전문가들은 향후 연간 5억~10억m³, 최대 10억~20억m³까지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
 - 공급 경로로는 아제르바이잔-튀르키예-불가리아-루마니아-우크라이나의 남부 가스회랑 및 트랜스발칸 파이프라인과 그리스 경유 노선이 거론, 특히 연간 10억m³ 공급 시 위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가스 수요의 약 15~20%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
- 우, 지뢰 제거를 경제회복 핵심 과제로 격상, 연간 GDP 110억 달러

이상 손실 추산(8.11)

- Fitch, 우크라이나 Naftogaz 신용등급 'CC' 유지,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·자금조달 위험 지속(8.12)
- 우크라이나, 재생에너지 경매 규정 완화 및 '26년 지원 쿼터 330MW 확정(8.13)
 - 경매 참여 시 은행 지급보증 외에 Guaranteed Buyer 직접 보증을 허용하고, 보증금액 및 계통연계 기한도 완화해 투자 부담을 축소
 - '26년 지원 쿼터는 총 330MW로, 이 중 풍력에 250MW를 배정해 신규 발전 확대 및 전력계통 안정성 강화를 추진
- EBRD·Aon, 우크라이나 전쟁위험 재보험 지원 한도 확대 추진(8.12)
 - EBRD가 Aon과 함께 운영중인 URGF(우크라이나 복구·재건 보증기구)는 가동 이후 9개월간 360백만 유로 규모의 물류·차량 보험을 지원하며 보장 여력이 소진, EBRD는 EU 등 국제 파트너와 지원 규모 확대를 추진
 - 기존 화물·차량·철도 중심에서 물류·에너지 자산 등으로 보장 범위 확대를 검토하며, 특히 에너지 관련 자산에 대한 보험 수요는 매우 높은 상황으로, 해당 분야는 충분한 손해·위험 데이터가 필요해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
- 우 물류산업, 전쟁으로 15억 달러 이상 손실 및 창고 부족 심화(8.13)
 - 우크라이나 물류산업은 러시아의 전면전 이후 15억 달러 이상의 전쟁 관련 손실을 입었으며, 상업용 부동산도 약 1백만~1.5백만m²가 파손 또는 파괴된 것으로 추산
- 우, 오데사 심해항 운영 중단으로 곡물 수출 물류비 상승(8.13)
 - 농업정책부는 오데사 지역 심해항 운영 중단으로 우크라 곡물 수출 비용이 톤당 약 50달러 증가했으며, 운송 차질 장기화 시 추가 물류비가 톤당 최대 7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

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①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 사업

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 업 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0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
'20. 10월 금융종결
'25. 8월 발주처, EPC 관련 보증 회수(Bond Call)
'25. 10월 ORLEN, Grupa Azoty에 250백만불 규모 투자안 제안
'25. 11월 현지SPC,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파산 신청
'26. 3월 현지SPC-현엔-카인드 구조조정(안) 관련 합의 완료

○(주요동향) '26년 하반기 중 폴란드 법원의 구조조정(안) 심의 결과 도출 예정이며, 합의내용 중 현금변제(→KIND, EUR 7.5백만) 입금완료

② Ursus 열병합 발전소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KIND, 남동발전, 베올리아, BHI
- (사 업 비) USD 453백만
- (사업기간) 2026.2.~2054.12. (건설 38개월, 운영 25년)
- (주요내용) 전기 110MWe, 열 90MWt 규모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및 운영
- (추진현황) '23. 4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의결
'24. 1월~7월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(F/S 컨설팅지원)
'25. 10월 타당성조사 재검증 용역 실시 (남동발전)
'25. 12월 KIND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
'26. 9월 금융종결 및 NTP 발급
'29. 11월 COD

○ (주요동향) 주주 간 계약 등 주요 계약서 execution version 도출 협의

③ 폴란드 바르샤바 모듈러 주택 단지 개발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S건설, Cordia, KIND
- (사 업 비) PLN 83.34백만
- (사업내용) 총 전용면적 5,296m², 중형(수평분리) 및 대형주택(수직분리) 36세대 건설
- (추진현황) '25. 2월 GS건설-Cordia 공동개발 논의
'25. 3월 GS건설, KIND向 사업참여 요청
'25. 6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승인
'25. 9월 GS건설-KIND간 공동개발업무협약의향서 체결
'25. 12월 투자심의 승인
'26. 1월 이사회 승인
'26. 6월 이사회 승인(법인설립)

○ (주요동향) '26년 6월 이사회 승인(자회사 설립)

'26년 8월초 투자계약 체결(KIND↔ZEIT)

'26년 8월중 법인인수(설립)

'26년 8월末 SPA 체결(KIND PL↔ZEIT)

* 폴란드법 상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,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조치 필요

④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개발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LX판토스, KIND, PIS펀드
- (사 업 비) € 129.7백만 (약 2,075억원)
- (사업내용) 총면적 108,977m² 규모 물류센터 5개동(Phase I: DC 1·2동, Phase II: DC 3,4,5동) 건설
- (추진현황) '24. 4월 물류센터 Phase 1 착공(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진행)
'25. 9월 물류센터 Phase 1 준공 및 운영 시작
'25. 11월 LH 사업 철회 및 KIND 사업 검토
'25. 12월 KIND 투자승인 / Phase 2 건축물 공사 착공
'26. 1월 금융종결
'26. 3분기 물류센터 Phase 2 준공(예정)

○ (주요동향) '26.7. DC3 준공 및 Occupancy Permit 완료

⑤ 폴란드 루블린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및 통합 관제센터

< 사업 개요 >

- (주관기관) 이에스이(주), (주)아이티코어스, (주)영국씨애피
- (수원정부) 폴란드 루블린시청
- (사업기간) '26.4.1 ~ '26.12.26.
- (사업예산) 700백만 원
- (사업내용)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과 통합 관제센터 구축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, 기존 교통관제 고도화 및 실증사업 수행
- (추진현황) '26. 4월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및 현지조사 수행, LOI 체결(4.28)
'26. 6월 MOU 체결(루블린시와 스마트시티 및 루블린 시 사업 추진 협력)
'26. 8월 현지 중간보고회 개최 완료(8.4.)
'26. 9월 국내 초청 역량강화연수 예정(9.6.~9.12.)
'26.12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
○ (주요동향) 폴란드 현지 중간보고회 개최 완료(8.4)

⑥ 우크라이나 EIPP 전후 재건을 위한 산업전략 10개년 및 3개년 실행 계획 수립 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주관기관) 안진회계법인(재무), 현대경제연구원(경제), 스마트도시건축학회(도시)
- (수원정부) 우크라이나 경제농업환경부
- (사업기간) '26.2.13. ~ '26.9.10. (210일)
- (사업예산) 1,241백만원 (재위탁 용역금액 818 백만원)
- (사업내용) 전후 재건을 위한 산업구조를 클러스터 관점에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함
- (추진현황) '26. 4월 착수보고회 개최 완료(온라인, 27일)
'26. 6월 세부실태조사 수행/URC 폴란드 행사참여(6. 22.~6. 28.)
'26. 7월 역량강화연수 및 중간보고회 개최(7. 19.~7. 25.)
'26. 9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
○ (주요동향) 착수보고회 개최(4.27), 현지조사 및 URC 재건회의 참석(6.25~26)

참고

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
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 이 우 교 통 마스터플랜 (완 료)	•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 •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	KIND LH	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'25.4월) • 후속사업(디지털교통 플랫폼 구축) 국토교통 ODA 추진
우만 스마트 시 티 마스터플랜 (완 료)	•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	KIND	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'24년 4월) • EDCF 사업화 모니터링 (계속)
보 리 스 필 공 항 현대화 등 재 건 (추 진 중)	•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	한국 공항공사	•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 •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•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과업착수('24.12), 최종보고('25.12)
부 차 시 하 수 처 리 시 설 재 건 (완 료)	•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	환경산업 기술원	• Pre-F/S 수행결과 최종 평가 완료('26년 1월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 • 현지상황 모니터링 후 후속사업 추진여부 결정
댐 재건 및 현대화 등	•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•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	수자원 공사	•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, 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6년 3분기)
철 도 노 선 고속화 등 (추 진 중)	• 우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 중 4개 구간 타당성 조사 ①키이우~지토미르~루츠크~국경(약 375km) ②키이우~빈니차~리비우~국경(약 580km) ③키이우~지토미르~리브네~리비우~국경(약 505km) ④키이우~지토미르~루츠크~리비우~국경(약 525km)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•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12월) 및 착수 보고회 개최('25.3월) * 외교부 ODA 지원사업 •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 ('26.12월)